

지도자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 부여할 것인가 - 7

- 느헤미야에 배우는 목회리더십
릭 워렌/ 새들백교회 목사

원리 7 : 개인적 간증으로써 격려하라

18절에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고하였더니.” 그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끌도록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둘째 부분은 여러 상황들이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확인해주었는지를 이야기한다. “또 저희에게...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는 “내가 이 일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멀리 수사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4달 동안 기도하면서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내가 그것에 대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사명에 응답하렴’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명은 비전으로 바뀌었다. 나는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그는 이 계획을 이루도록 나를 부르셨다. 단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이 일을 하도록 허락케 하셔서 내 사명을 확인하게 해 주셨다. 그는 마병 호위대를 내주었으며, 비용 또한 지불할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오도록 요청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리고 “당신의 삶 가운데서 이 일을 확인해준 누군가가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단지 당신 혼자서 생각해낸 것인가. 이 일을 확증해주는 어떤 증거들”살펴봄으로써 그 요청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어떻게 새들백교회가 탄생했는가에 대해 멤버십 클래스(Membership Class)에서 간증한다. 나는 행복하게 나의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텍사스의 Fort Worth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캘리포니아로 가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분은 연속되는 기적들을 통해 이 일을 확인시켜주셨다.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경외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확증을 준 많은 사람들이 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으며 여러 환경들이 그의 소명을 어떻게 확증시켜 주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나눈다. 18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응답한다.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은 고무되었다. 90년 동안이나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와서 말한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이 곳에 보내셨다. 또한 우리는 만약 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왕의 허락까지도 받았다.”

그 비전은 전달되었다. 우선 그는 이 일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말했다. 처음에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 일을 비밀에 부쳤다. 즉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가서 현장을 조사했으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일단 사실이 어떠한지를 모두 파악하자 그는 문제를 극적으로 표현했고, 명확한 응답을 요청했으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어떻게 그를 부르셨고, 여러 환경들이 하나님의 부

르심을 어떻게 입증시켜 주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함으로써 백성들을 격려했다. 이제 비전이 전달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느헤미야의 비전이 아니라 온 백성의 비전이 되었다. 오랫동안 비밀이었던 일이 이제 나누어졌다.

왜 느헤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동기부여에 사용했는가? 그는 지도력의 전형적인 원칙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을 따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어진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11:1). 왜 누군가가 당신을 지도자로서 따라야만 하는가? 언제 당신은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되는 것일까? 대답은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때”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당신은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된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회자인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볼 수 없을 때, 나를 따르지 말기 바란다. 그럴 때는 나를 따르지 말기를 부탁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본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그때는 나의 지도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의 지도력과 협력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지도력에 대한 검증 방법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적용되는 검증법이다. 나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유일한 검증 방법이다. 교육수준? 아니다. 재능? 역시 보지 말기 바란다. 당신이 결코 따라서는 안 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당신들이 결코 따라서는 안 될, 자격 증명서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는가? (계속)

: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3년 2월호 184-193페이지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http://www.durano.com/moksin>).